

지금 유관기관에서는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한기대 지역혁신센터와 MOU 체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최형기, 이하 KTR) 녹색기술본부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지역혁신센터와 공동연구에 따른 시험장비 및 노하우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장원인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한기 녹색기술본부 본부장과 진경복 지역혁신센터 센터장은 9월 5일 천안시 부대동 코리아텍 제2캠퍼스에서 '융합형 부품·소재의 시험 분석 평가 및 각종 손상 고장원인규명을 위한 공동연구와 시설장비, 학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MOU에 앞서 양 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장비 교육 ▲교전자 화학재료의 고장분석기법 및 원인분석 ▲금속재료의 물리적 파손원인 분석사례 등의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인력, 분석장비, 기술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지역혁신센터는 지역 내 기업의 기술, 인력,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전남도와 바이오코리아 공동부스



KTR 헬스케어연구소가 전남생물약의약품연구원 및 화순군과 함께 '바이오코리아 2013' 전시회에 참가해 KTR의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홍보했다. 헬스케어연구소는 9월 11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고

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바이오코리아 2013' 전시회에서 '화순 백신산업 특구 생물 의약품'을 설치하고, 행사기간 동안 KTR의 사업 홍보와 함께 관련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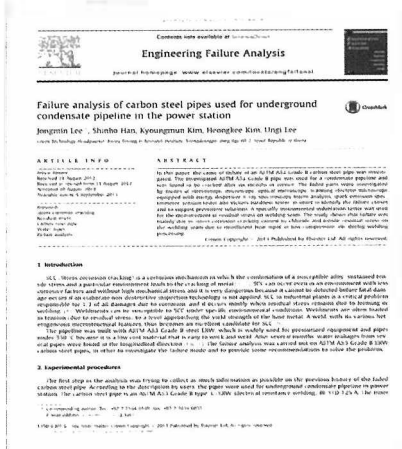
특히 헬스케어연구소는 전남 화순 이천을 앞두고 관계 기업에 화순 헬스케어연구소를 알리는 한편, 바이오코리아 참가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바이오코리아는 의약품, 의료가기, 바이오, 식품, 화장품 분야 등 제약 및 바이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국내외 300여 개 기업 500여 부스가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 전시회, 접대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해외 SCI 저널에 논문 게재



KTR 녹색기술본부 기술컨설팅팀의 손상고장원인분석 연구논문이 해외 유명 학술저널 게재 및 업무협약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2013년 9월자로 손상고장원인분석 및 관련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SCI Science Citation Index 과학인용색인) 논문저널 'Engineering Failure Analysis'은 기술컨설팅팀이 제출한 논문 'Failure analysis of carbon steel pipes used for underground condensate pipeline in the power station (매설된 발전소 응축수 배관용 탄소강관의 손상고장원인분석)'을 게재하였다. (Engineering Failure Analysis, vol.34, p.300-307, 2013)

논문에서 이종민 대리 등 기술컨설팅팀은 발전소 응축수 배관으로 사용된 탄소강관의 용접부 균열로 인한 누수 현상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배관의 용접불량으로 인한 인장진류응력과 외부 환경요인이 복합적인 작용으로 용접부에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이 발생했다는 점을 규명해냈다.

이번 연구논문을 위하여 기술컨설팅팀은 2012년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대 복합환경저어 멀티스케일 시험평가센터(OMTAC)와 함께 용접부 잔류응력 측정에 대한 공동 분석을 실시해왔다. 또한 기술컨설팅팀은 업무협약 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지역혁신센터와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같은 학술지에 자하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으로 사용된 스테인리스 배관의 단시간에 발생한 용접부 부식 원인을 규명한 'Microbially influenced corrosion of a AISI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tube for a buried water pipeline(지중 스테인리스 수도관의 미생물 영향성 부식 연구)' 논문을 제출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다.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KTR

화학물질 노출평가 및 노출시나리오 작성 세미나



KTR 녹색기술본부 환경규제대응팀은 9월 25일 섬유센터빌딩에서 '화학물질의 노출평가 및 노출시나리오 작성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와 노출평가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세미나에서 유문선 팀장은 'CHESAR 프로그램을 활용한 화학물질 노출시나리오 생성'이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양영길 대리는 EU의 화학물질 노출량 산정 프로그램인 ECETOC TRA와 EUSES 프로그램을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시연을 통해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고, 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였으며, 삼성전자, LG화학 등 70여 관련 기업이 참여, 화학물질의 노출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화학물질의 노출평가는 화평법에서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환경규제대응팀은 화평법 시행에 대비하여 화학물질의 노출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KTR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 지원사업 사전 설명회

KTR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 및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사전 설명회'를 9월 26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내 회의실에서 열었다.

KTR 정창석 과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의 세부 추진계획과 신청 절차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조재일 전라북도지관 선임연구원은 전라북도 수출관리 제도 및 국내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업체 담당자 외에도 추가 신청이 잇달아 당초예상을 넘는 300여 명이 참석해 화의실을 가득 메웠으며, 설명회 이후엔 참석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기도 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 지원사업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규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KTR이 관리 기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KTR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10월 중에 각 지방청을 순회하며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KCL

몽골에 시험인증 평가기술 수출 나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송재민, 이하 KCL)은 몽골의 국가표준 협력을 위하여 몽골 건설도시개발부와 건설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 건설도시개발부는 도시 및 인프라 건설 등을 담당하는 중요 부처로 몽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CL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몽골 건설도시개발부(장관 Ts. Bayarsakan)를 방문하여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몽골정부 시험소 구축에 관한 건설 및 장비구축 협력 ▲시험소 전산시스템 구축 ▲교육·훈련을 위한 상호 인적교류 ▲건설재료, 지진 등에 관한 공동 시험 및 연구 ▲상호

지금 유관기관에서는

기술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KCL은 몽골 건설개발센터(센터장 B. Bayarsakhan)도 방문하여 ▲상호 표준개발 및 교류협력 ▲교육, 훈련 등 상호 인적교류 ▲상호 기술정보 등에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KCL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건축 및 토목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시험, 인증, 평가 기술을 몽골에 수출할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표준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표준 인프라 협력사업(SOP)의 일환으로 신흥시장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표준체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KCL은 이번 협약에 따라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내 건설재료분석시험소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소 운영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해당 시험소의 직원을 KCL로 초청해 시험인증 평가기술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KCL

안전융합산업기반구축사업 MOU 체결



KCL은 9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대구도 시공사와 '안전융합산업기반구축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대구시 서구 관내 연구소 설립과 안전실증시험단지 구축, 신개념 안전인증제품 확산 등을 위한 것으로 KCL과 대구시 서구, 대구도시공사 간의 안전 관련 신산업군 창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KCL은 대구지역 기업에 대해 제품개발, 시험·검사, 기술이전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대구시 서구는 부지확보 등 기반조성, 창업지원 및 역외기업 유치 등의 행정적 지원을 맡았고, 대구도시공사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실증단지 구축 및 신개념 안전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KCL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이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KCL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 참가



KCL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에 참가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국내 유일의 태양광전문 전시회인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는 총 300여 개의 태양광 기업들이 참가하여, 태양광 셀·모듈, 태양광 소재·부품, 태양광 전력 및 발전설비, 태양광 생산 장비 등에 대한 전시는 물론 해당 분야의 컨퍼런스도 함께 개최되었다.

KCL은 태양에너지 관련 연구원 인프라와 태양 전지 모듈 및 부품 등에 대해 전시했다. 또한 부품 소재 열화 신뢰성 평가방법, 태양전지 성능평가 시험 장비, 차세대 태양전지(CGS 태양전지,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성능평가방법, BIPV 표준화 관련 내용 등을 소개하여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정진 KCL 신소재신뢰성센터 책임연구원은 '한국 태양광 산업 품질인증 및 테스트 기술 컨퍼런스'에서 '유형별 BIPV 시험법 개발'이라는 주제로 BIPV 시험 인증시스템 표준화 관련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PV)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요소(지붕, 창호 등)의 표준화와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였다. 송재빈 원장은 "매년 우리나라는 저에너지효율 건물시스템으로 인해 17조 원 이상의 에너지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KTC

TUV NORD와 시험성적서 인정 MOU 체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최갑홍, 이하 KTC)은 9월 18일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독일국가시험인증기관인 TUV NORD와 KTC가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동



기, 배터리, PV, RoHS, 일반 전기 분야, 전자파 등 6개 분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KTC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면, 기존 대비 빠른 일정(8주~9주)과 저렴한 비용(50%)으로 시료 제출 없이 유럽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1869년에 설립한 독일의 국가시험인증기관인 TÜV NORD는 70개 국에 150개 지사와 직원 10,000여명을 보유한 세계 9위권의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다. 한편 KTC는 국내 인증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인 기술장벽 해결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인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독일 TÜV NORD와의 MOU 역시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KTC는 해외 유명 인증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해외인증산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국내 중소수출업체의 해외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KTC

KTC, 전 직원 연찬회 개최



KTC는 최근 시험인증서 발급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관련한 제도적·인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직원 연찬회를 실시했다.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한국표준협회 인성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는 KTC 400여 명의 전 직원이 참여했다.

KTC는 신청, 시험절차, 성적서 발급 등의 모든 운영절차를 IT 기반으로 시행하는 통합전선망을 구축하여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점검하는 감사

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성적서 하단에 2차원 바코드 삽입, 원본 진위 식별코드, 컴퓨터 화면에서 성적서 캡처 방지기능 등을 반영하여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감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인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임직원의 윤리행동 교육을 실시하고, 전 임직원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윤리선언식 행사를 진행했다. 최갑홍 원장은 취임 이후 KTC를 세계 수준의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경영비전을 세우고, 윤리적, 과학적, 공신력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꿈을 실현하고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경영방침을 이루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FTI
시험연구원

FTI

FTI, 박순덕 부원장 취임

9월 16일



FTI시험연구원 3대 부원장으로 박순덕 前 기술표준원 생활공감표준화팀장이 취임했다. FTI시험연구원은 9월 2일 이사회를 개최해 박순덕 부원장을 선임하고, 16일 본원에서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순덕 신임 부원장은 1988년 총무처 공채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청을 거쳐 기술표준원의 다양한 부처에서 공업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역임하고, 2012년 2월부터 생활공감표준화팀장을 맡아왔다.

박순덕 부원장은 취임식에서 "유관 기업들과 협의하여 R&D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FTI시험연구원의 발전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순덕 부원장은 공업진흥청 표준국화성표준과, 기술표준원 섬유화학표준과, 화학응용표준과, 바이오환경표준과 등에서 표준정책 개발 및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을 주도해왔으며, ISO 인증심사원, KAS 평가사, KOLAS 평가사 등 풍부한 업무 경력을 토대로 표준 및 시험인증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